

일산에서 단체 모임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머릿속에 많은 조건이 겹친다. 인원 변동, 예산, 이동 동선, 메뉴 취향, 소음, 사진 촬영, 결제 방식까지. 특히 라운지형 공간과 펌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퍼블릭 콘셉트의 업장은 조명과 음악, 좌석 구성, 프라이빗 존 같은 요소가 회식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정발산역과 마두역을 중심으로 라페스타, 웨스턴돔, 백석, 대화역 KINTEX 주변까지 상권이 이어져 선택지가 많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예약한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인원엔 맞는 구조, 예상 동선, 단체를 위한 운영 경험이 있는지, 소음과 음식 속도의 균형이 맞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 글은 일산 하이퍼블릭 스타일의 공간에서 단체 회식과 모임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정리한 것이다. 특정 업장을 홍보하려는 목적은 없다. 어디를 고르든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디테일을 담았다.



## 어느 상권을 택할 것인가

정발산역과 마두역 사이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에 단체를 소화할 만한 매장이 모여 있다. 20명 안팎이라면 이 구역이 대체로 무난하다. 매장 간 거리가 가까워서 2차 이동도 쉽고, 분산 귀가에도 유리하다. 다만 금요일 저녁은 경쟁이 치열해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화역 주변은 KINTEX와 전시장 일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시 기간에는 외지 팀과 겹쳐 예약이 포화에 가깝다. 대규모 주차가 가능한 복합몰의 장점 대신, 막차 시간대에 교통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백석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한산하지만, 택시 수요가 겹치는 시간에 배차가 지연되는 편이다.

거리와 접근성만 보지 말고, 모임의 성격과 귀가 동선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든다. 본사에서 마두역, 협력사에서 대화역에서 온다면 정발산역 중간 지점을 잡아 전체 이동 시간의 형평을 맞추는 식이다.

## 하이퍼블릭 콘셉트의 장단점

일산 하이퍼블릭 업장은 조명, 음악, 라운지형 좌석과 스탠딩을 조절하며, 칵테일과 병맥, 간단한 플래터부터 식사 대응 메뉴까지 폭을 넓힌 곳이 많다. 단체 모임에선 이 유연함이 강점이 된다. 조도를 낮추고 BGM을 올리면 회식이 딱딱해지지 않고, 바 좌석과 테이블을 섞어 자연스럽게 섞이고 흠뻑될 수 있다.

반면 음식이 ‘코스’로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스낵과 메인, 디저트가 흘러가듯 제공되는 경우가 잦다. 건배 이후 20분 안에 배를 채우고 싶은 팀이라면 당황할 수 있다. 또 스피커 출력이 센 공간에서는 15인 이상이 동시에 호응하는 브리핑을 진행하기 어렵다. 발표나 시상 계획이 있다면 마이크와 소리 조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말 밤 타임은 주변 테이블의 에너지까지 합쳐져 열기가 오른다. 소음에 민감한 구성원이나 외부 손님이 포함돼 있다면, 평일 저녁 초저녁 타임을 잡되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을 넉넉히 예약하는 편이 좋다.

## 인원과 좌석, 동선을 먼저 그려보기

인원만 확정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좌석 배치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16명은 두 테이블 병합으로도 대화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24명을 일렬로 붙이면 끝단과 끝단이 완전히 단절된다. 가장 듣기 쉬운 좌석은 중앙에서 3칸 이내, 가장 소외되기 쉬운 좌석은 통로 모서리다. 신입, 외부 초청자, 발언이 필요한 파트장을 어디에 둘지까지 생각하고 자리를 배정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하이퍼블릭 공간은 소파형 라운지, 하이테이블, 스탠딩 존이 섞인 경우가 흔하다. 소파는 편안하지만 서로 고정돼서 자리 이동이 어렵고, 하이테이블은 이동과 네트워킹에 좋다. 혼합 배치는 편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내 경험상 20인 규모에서는 U자형 소파존에 중심 좌석 6명, 양측에 7명씩을 두고, 건배와 공지 후 40분에 한 번씩 자연스러운 자리 섞기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반응이 좋았다.

## 예산 설정, 세부 항목을 쪼개서 본다

단체 예산을 ‘인당 5만 원’으로만 정하면 회계가 흔들린다. 총액은 음식, 주류, 추가 주문, 서비스 차지, 룸 사용료, 코르크 차지, 마이크나 스크린 같은 장치 대여, 케이크 보관, 포장비까지 나뉜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개인 카드 여러 장으로 분할 결제가 필요한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

일산 하이퍼블릭 업장 기준으로, 캐주얼 세트는 인당 2만 8천에서 4만 5천 원 선, 주류 포함 라이트 패키지는 4만 5천에서 8만 원, 브랜드 위스키나 프리미엄 칵테일을 포함하면 8만에서 12만 원까지 올라간다. 코르크 차지는 병당 2만에서 5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었다. 인원이 18명 이상이면 세트와 단품 혼합 주문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다. 한 팀은 세트를 기준으로, 식성이 좋은 팀원 테이블에는 사이드 2개를 더하는 식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간혹 회사 규정상 카드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가 필수인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요청하면 시간이 걸리거나 다음 날 사업자등록증과 [주엽 하이퍼블릭](#) 이메일을 추가로 주고받아야 한다. 서류가 중요하면 예약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과 발행 메일 주소를 전달하고, 행사 당일 현장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자.

## 예약 타이밍, 성수기와 시간대의 함정

일산은 봄 가을에 회식 수요가 집중된다. 3월과 9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은 피크였다. 그 주 금요일을 노리면 2주 전에도 좌석 확보가 쉽지 않고, 원하는 존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발산, 라페스타 쪽은 야외 행사나 거리 공연이 겹치면 소음과 유입 인원으로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시간대도 변수다. 타임 슬롯을 18시, 20시 30분으로 나누는 매장이 많다. 초저녁 슬롯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30분, 후반 슬롯은 폐점까지 2시간 남짓이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어 체감 체류 시간은 더 길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 초저녁, 네트워킹과 자유 대화 위주라면 후반 슬롯이 어울린다.

단체 보증금은 총액의 10에서 30퍼센트 사이가 일반적이고, 노쇼나 당일 인원 급감에 대비해 전일 정오까지 확정 인원을 재확인한다. 당일 3인 이상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보이면, 테이블 단위를 나눠서 예약해 손실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 음식 구성, 속도와 포만감의 균형

하이퍼블릭 업장은 접시 단위의 공유 플래터가 중심이 되기 쉽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건배 직후 10분 안에 나오는 스낵과 20분 안에 도착하는 메인 1라운드, 1시간 경에 추가되는 따뜻한 메뉴, 마무리 타이밍의 간단한 디저트까지 흐름을 미리 합의하면 공백 시간이 줄어든다. 군침만 돌다 술이 먼저 돌아 버리면 분위기가 무너지기 쉽다.

매운 정도, 튀김 비중, 채식 옵션도 한 번쯤 체크해야 한다. 한 팀에서는 알레르기 때문에 새우를 피해야 했고, 다른 팀에서는 튀김이 많아 1시간 만에 포만감이 정점에 달했다. 이후 주류 주문이 줄며 예산 배분이 꼬였다. 메뉴를 절반은 단백질 중심, 절반은 탄수화물 비중을 낮춘 가벼운 플레이트로 섞으면 전체가 오래 즐길 수 있다.



케이크를 반입할 계획이라면 보관 공간과 반입 시간, 커팅 가능한 칼과 접시 제공 여부를 확실히 하자. 어느 곳은 파손 위험 때문에 플라스틱 나이프만 제공하기도 한다. 촛불 사용은 화재경보기와 연결돼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케이크 사진만 찍고 촛불은 스킵하는 편이 안전하다.

## 음향, 조명, 화면이 필요한 모임을 위한 팁

시상식, 포상, 간단한 퀴즈 이벤트를 계획한 적이 있다면, 마이크 대여와 BGM 볼륨 조절 가능 여부가 관건이다. 소형 블루투스 마이크는 음악 위에서 목소리가 묻히기 쉬웠고, 유선 마이크 1개와 2분짜리 발표 3꼭지 정도가 가장 무난했다. TV나 프로젝터가 있다면 연결 규격을 확인하자. HDMI 단자는 대부분 있지만 C to HDMI 젠더가 없는 매장도 많다. 동영상에 소리가 필요하다면 오디오 출력 경로를 점검해야 한다. 노트북 볼륨은 70퍼센트를 넘기지 않는 것이 왜곡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조명은 사진 퀄리티에 큰 차이를 만든다. 건배 사진을 찍을 때 조도를 살짝 올릴 수 있는지, 네온 간판이 얼굴을 색 왜곡시키지 않는지 확인하자. 예약 단계에서 “단체 사진 2장 정도 밝게 찍고 싶다”라고 요청해두면, 현장 매니저가 타이밍에 맞춰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다.

## 이동과 귀가, 안전을 설계에 포함시키기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도보 동선이 좋아서 2차 이동이 쉽다. 하지만 막차 시간은 문제다. 지하철 3호선은 자정 전후로 상하행 막차가 갈리고, 경의중앙선 환승은 조금 더 일찍 끊어진다. 막차를 탈 팀과 대리운전 팀을 분리해 30분 일찍 자리를 정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택시는 목요일 밤 10시 이후 수요가 높아진다. 빗방울만 떨어져도 호출이 급상승한다. 미리 하차 지점과 픽업 동선을 지도에 표시해 공유하면, 건물마다 정문과 후문이 달라 헤매는 시간을 줄인다. 음주가 예상되면, 귀가 동선 공지를 초대장에 포함하는 습관을 들이자. 참석자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

## 예약 전 체크리스트

- 날짜와 시간대 2지망까지 확보하기
- 확정 인원과 ±2명 변동 가능성 공유하기
- 발표, 시상, 단체 사진 등 필수 진행 요소 전달하기
- 예산 상한과 결제 방식, 세금계산서 필요 여부 명시하기
- 식단 제한, 알레르기, non알코올 옵션 확인하기

## 사례로 보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한 번은 24명 규모의 프로젝트 마감 회식을 일산 하이퍼블릭 라운지에서 치렀다. U자형 좌석에 마이크 1개, TV 1대, 라이트 패키지로 시작했다. 건배 5분 전 조도를 올리고, 건배 직후 스낵과 샐러드, 15분 뒤 따뜻한 플레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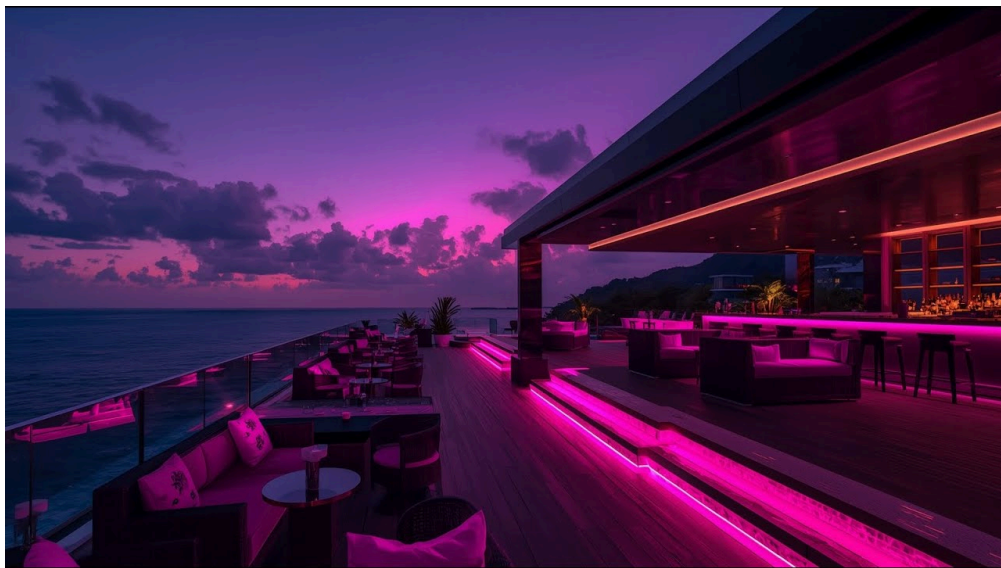
들어왔다. 45분째 팀장 시상 2꼭지, 1시간 10분째 1인 1잔 칵테일 라운드, 1시간 40분째 케이크 커팅을 진행했다. 귀가 팀을 위해 2시간 15분에 BGM을 낮춰 단체 사진을 찍고, 2시간 30분에 회람을 마쳤다. 이후 2차는 자율 합류로 바꾸었고, 절반은 정발산역 막차, 절반은 2차로 헤어졌다. 다음 날 피드백 설문에서 5점 만점 4.7점이 나왔다. 식사와 대화의 균형, 사진 퀄리티, 자리 섞기 타이밍을 칭찬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18명 모임에서 굳이 라이브 공연이 있는 시간대를 골랐던 적이 있다. 공연 시간은 매장 공지대로면 30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앙코르로 20분이 더 이어졌다. 발표 3꼭지를 그 사이에 끼워 넣다가 일정이 어긋났다. 조도가 낮아 단체 사진이 어둡게 나오고, 소음 때문에 안내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메뉴도 튀김과 나초가 많아 1시간 만에 포만감이 과하게 올라갔다. 이후 술 주문이 줄며 예산이 애매해졌고, 2차 이동을 서두르던 팀과 남는 팀이 갈리면서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때의 교훈은 간단하다. 공연과 이벤트가 확정된 시간대에는 브리핑을 최소화하고, 메뉴는 가벼운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자. 사진은 공연 시작 전 10분에 끝내야 한다.

## 커뮤니케이션, 실무에서는 이 순서가 효율적이다

예약 전 통화에서 “단체 진행 경험이 많은 매니저가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단체 경험이 풍부한 매장은 자리 배치와 타임라인을 스스로 제안한다. “19시 건배, 19시 20분 플래터, 20시에 사진, 20시 20분 케이크” 같은 진행표가 오면 이미 반은 성공이다. 이후로는 알레르기, non알코올 칵테일, 마이크 테스트, 결제 분할 가능 여부, 계산서 발행 절차를 확정한다.

참석자 커뮤니케이션은 너무 길면 읽지 않는다. 시간, 장소, 드레스코드, 귀가 동선, 주차 정보, 비상 연락처 정도만 담아 이미지로 만들어 카톡에 올리면 열람률이 높다. 자가용이 많을 때는 해당 건물 주차장 만차 시 대체 주차 동선을 지도 링크로 함께 보낸다. 주차 할인은 같은 건물 내 매장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동일 상가 여부를 꼭 확인하자.



## 예의와 안전,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단체는 존재감이 크다. 옆 테이블과 동선을 공유하는 순간이 있고, 피크 타임에는 직원들이 숨 쉴 틈이 없다. 작은 배려가 결국 우리 팀의 경험으로 돌아온다. 주문은 한 번에 묶어서 요청하되, 추가 주문은 2회 정도로 나눠 직원의 동선을 줄인다. 자리 이동은 트레이 동선이 없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과음 방지는 공지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 생수와 무알코올 음료를 초반에 충분히 테이블에 올려둔다. 술이 돌기 시작할 때 빈 물컵을 찾으면 이미 늦다. 술잔을 내리기 전, 물 한 모금 규칙을 게임처럼 섞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작은 장치들이 다음 날의 생산성을 지킨다.

사진과 SNS 공유도 규칙을 세워두면 분쟁을 방지한다. 사내 정책에 따라 얼굴 공개가 어려운 팀원이 있을 수 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공개 범위를 바로 합의하고, 후속 게시물에는 회사명과 프로젝트명을 최소화하는 편이 깔끔했다.

## 예약 변경과 취소, 분쟁을 피하는 문구

보증금과 취소 규정은 말로만 합의하면 위험하다. 문자나 메시지로 “전일 정오 이후 3인 이상 인원 감소 시 1인당 최소 주문 금액 청구” 같은 문구를 확인받아두자. 매장도 팀도 불편하지 않게, 상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특히 야외 행사로 이동하는 계획이 섞여 있을 때 우천으로 일정 변경이 자주 발생한다. 그럴 경우 대기 좌석 확보나 시간대 이동 가능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반대로 매장 측의 일정 변동도 생길 수 있다. 대관이 연장되거나 시설 점검이 길어지는 경우, 공지와 대안 좌석, 업그레이드 보상 여부를 미리 합의하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이 줄어든다.

## 일산 하이퍼블릭과 잘 맞는 모임, 덜 맞는 모임

하이퍼블릭 콘셉트는 친목이 목적이고, 사진과 분위기를 중시하며, 네트워킹이 필요한 팀에게 특히 잘 맞는다. 서로 다른 부서가 섞여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넓히는 데 유리하다. 프로젝트 마감, 환영회, 송별회, 협력사 네트워킹에 성과가 좋았다.

반대로 엄숙한 기념식, 장시간의 프레젠테이션, 공식 임원 감사 보고 같은 성격은 전용 컨퍼런스룸이나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 낫다. 하이퍼블릭 공간에서도 세미 프라이빗 존을 제공하지만, 벽 하나가 주는 집중도와 보안성에는 차이가 있다. 보안이 필요하거나 녹취가 이뤄지는 회의라면 다른 유형의 공간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현장에서 유용한 한 장의 메모

진행표를 A4 한 장으로 프린트해 포켓에 넣어두면 흔들림이 적다. 시작 10분 전에 매니저와 다시 맞춰본다. 건배 타이밍, 사진 타이밍, 케이크 타이밍, 귀가 안내, 결제와 영수증 발행 순서. 이 체크만으로도 막판 10분의 혼란이 사라진다.

## 행사 당일 진행 흐름, 빠르게 훑는 순서

- 도착 15분 전 현장 도착, 좌석과 음향, 조명, 화면 테스트
- 건배 5분 전 조도 업, 1라운드 음식과 물, 논알코올 음료 세팅
- 건배 후 40분까지 네트워킹 유도, 45분 시상 또는 발표 2꼭지
- 1시간 40분 케이크 또는 포토, 귀가 팀 동선 공지
- 2시간 20분 정산 시작, 2차 자유투 안내와 마무리 인사

## 마지막으로 남기는 판단 기준

좋은 회식은 디테일 몇 가지로 완성된다. 첫째, 인원과 좌석의 어울림. 둘째, 음식의 타이밍과 포만감 곡선. 셋째, 조도와 소리의 미세 조정. 넷째, 귀가 동선의 안전. 다섯째, 결제와 서류의 정리. 이 다섯 가지만 명확히 잡으면, 어느 공간에서도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일산 하이퍼블릭 업장을 고를 때는 네온과 음악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단체를 다뤄본 운영 경험을 확인하자. 경험 있는 매장은 타임라인과 좌석 배치, 알레르기 대응, 사진 타이밍까지 능숙하다. 같은 예산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우연에 맡기지 말고, 몇 통의 전화와 몇 줄의 문장으로 확실한 합의를 만들어두자. 그 과정이 끝나면 현장에서는 웃고 즐기지만 하면 된다. 다음 날 단체 채팅방에 사진과 감사 인사가 이어질 때, 준비에 쓴 시간이 보상받는다.